



신명나는 판소리·군무 관객들의 눈·귀 사로잡다

▶ 광한루연구가 창작 '월매를 사랑한 놀부'
9월 2일 기준 관객 3000명 돌파

긴 장마·무더위로 야외공연 한계 불구
우천시 환불 진행·장소 변경 안내 등
신속·유연한 대처로 관객 소통 나서



광한루연구가 다섯번째 이야기 '창극 월매를 사랑한 놀부'가 지난 9월 2일 토요일 기준 관객 3천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5월 20일 개막공연을 시작해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광한루원 수상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창극 '월매를 사랑한 놀부'는 유료공연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총 20회 중 4회를 남겨놓고 있다.

올해는 전에 없는 긴 장마와 무더위로 야외 공연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우천시 티켓구매자에게 각각 연락을 취해 환불 진행과 장소 변경을 안내했고 완결점에서 무료 갈라쇼를 진

행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로 관객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

창극 '월매를 사랑한 놀부'는 춘향전과 흥부전의 뒷이야기를 해학과 풍자로 풀어낸 창작 창극으로 사랑에 빠진 월매와 놀부가 사기꾼으로 돌아온 변화도를 몰아내고 흥부 가족을 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스토리 월매, 놀부, 변화도를 익숙한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연기국녀(제비)들이 객석에 등장해 관객과 직접 호흡하며 극을 이끌어 나간다. 또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들이 출연해 판소리의 정석

을 선보이며, 세련되고 웅장한 국악 관현악과 화려한 군무는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남원시는 "오작교와 광한루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린 수상무대와 야경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경관 조명은 창극 광한루연구가에서 만 볼 수 있는 자랑입니다. 신선한 가을밤 가족, 연인과 함께 즐겁게 관람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초대의 말씀을 전했다.

'월매를 사랑한 놀부' 공연은 국악관현악의 경쾌한 장단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 제비들을 표현한 우아하고 섬세한 안무, 월매의 춤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연주 삼박자가 어우러져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다. 또한 공연과 함께 옷칠 디딤인형 만들기, 판소리 따라 배우기, 향음예술단의 신명놀음, 프리포즈 이벤트 등 관객들이 남원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민중의 역사, 혼불 주제 형성 중요 요인”

서철원 문학박사, 혼불학술상 수상

문학박사 서철원 씨가 혼불학술상 제12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2016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를 논문 '혼불의 탈식민성 연구'다.

서철원 씨는 논문에서 '혼불'의 후반부 공간이 왜 민주까지 확대되었는가에 주목하면서 일제강점기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관련해 '전통의 복원'과 '민중의 역사'가 소설 혼불의 주제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원류로 소설 내부에서 고인된 탈식민의 성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심사를 맡은 전홍남 교수는 "수상논문은 '혼불'이 지닌 추상적 의미들이 우리 민족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경험 유인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들은 재생·소통·회복의 의미로 전통을 복원시켜가고 있음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수상자 서철원 씨는 "혼불에 깃든 불멸의 정신, 그 높고 외로워서 가시밭길 같은 단상 선생의 문학은 그 자체로 '혼불'이었다"면서 문장의 탐을 쌓으며 살아갈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고 소감을 말했다.

경남 함양 출생으로 전북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최명희 혼불의 인지 의미론적 연구(현대문학이론연구·2015)와 '혼불과 아버지의 탈식민성 연구(국어문학·2016) 등의 논문을 비롯해 장편소설 왕의 초상(다산북스·2015), 혼백(인사이트·2017)을 발표했다. 현재 전주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혼불학술상은 소설가 최명희(1947-1998)의 문학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이 공동 제정한 상(상패·삼금 3백만 원)이다.

시상식은 10월 21일 오후 4시 최명희문학관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어린이 미디어 체험전 '공짜공짜 알록달록 그래, 나는 미술이다'를 7일부터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미디어 전시.

‘공짜공짜 알록달록 그래, 나는 미술이다’

소리축제조직위, 어린이 미디어 체험전 7일부터 진행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한)는 어린이 미디어 체험전 '공짜공짜 알록달록 그래, 나는 미술이다'를 7일부터 진행한다.

'공짜공짜 알록달록 그래, 나는 미술이다'는 올해 소리축제가 특별기획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미디어를 통해 현대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한다.

이번 체험전에는 총 14개 팀의 현대미술 작가와 23개의 설치 및 미디어 작품이 전시된다.

'트 코르뷔지에' '마크 로스코' 전 등 다수의 히트 전시에 참여한 박영훈 인덕대 교수를 중

심으로 현대미술 작가들이 대거 결합한 전시를 비롯해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기하고 독특한 작품들이 총 망라된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폭넓은 문화예술의 경험이 우리 문화, 우리 전통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특별한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입장료는 1만 3천원. 전시는 오는 24일까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장마감 오후 5시) 관람할 수 있다. 유아의 경우 36개월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9일 미샤 마이스키 리사이틀

첼로의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미샤 마이스키'가 9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 마이스키가 준비한 음악은 슈만과 브람스, 풀랑크와 브리튼의 19~20세기 음악들이다.

그는 풍부하면서도 우아한 선율을 자랑하는 슈만의 환상소곡집과 첼로 소나타 중 최고의 걸작이라 손꼽히는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2번과 '사랑의 길'을 비롯한 아름다운 풀랑크의 가곡들 그리고 로스트로포비치에게 헌정된 브리튼의 첼로 소나타 C장조를 연주한다. 그의 딸 릴리 마이스키가 피아노 협연자로 무대에 선다.

공연은 VIP석 11만원, R석 8만8천원, S석 5만 5천원이며, 초중고 학생은 30% 할인된다. /정해은 기자



'러브 앤 뮤지컬' 익산예당서

김소현 손준호의 '러브 앤 뮤지컬'이 오는 9일 오후 5시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공연된다.

'러브 앤 뮤지컬'은 KBS2TV '불후의 명곡', SBS '오 마이 베이비' 등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의 사랑과 일상 이야기를 엮어 토론퀴트 서트 형태로 선보인다.

김소현·손준호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함께 출연한 것이 인연이 돼 연인으로 발전,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날 무대에선 두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뮤지컬 넘버 '오페라의 유령'을 비롯해 '지킬 앤 하이드' '뱀 오브 라만다', 클래식·팝 등의 음악을 들려 줄 예정이다.

입장료는 전석 3만원. /정해은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해발 400~800m 연평균 11.3°C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달합니다!

1614m 덕유산고랭지가 길러낸
안전한 먹거리 무주농산물!!



제3회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장소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

11.3 금
11.5 일
2017.

주관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추진위원회 Tel:063)320-2841~2

구독·광고문의 288-9700